

갤러리 색즉시공



마당의 두 글자

나무 한 그루, 그 나무 쓸고 간 바람 한 점
언제부턴가 바라보는 것들은 모두 '너' 가 되었고
봄이든 가을이든
그냥 지나치지 못한 것들은 업이 되었다
바라본다는 것은 '나' 에 기대 살기 때문이고
지나치지 못한다는 것은 법 없이 살기 때문이다

그런 나와 '너' 사이엔 경전이 팔만사천이고
부처님 모신 작은 마당엔 두 글자뿐이다
'너' 하나를 기다리는 데 쓰인 시간과
지나치지 못한 것들이 그렇게 적혀 있다

사진 · 글=박재원 기자

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 '사랑' 품게 해

어머니의 사랑

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다. 어머니를 통해 사랑만큼은 원 없이 받으며 컸고, 시집을 와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.

유모와 침모를 다 데리고 시집을 오실 만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어머니는 성정이 순진하시고 고전적인 미인이었던 데다가 음식 솜씨가 뛰어났다.

신혼 때는 친정어머니가 같이 시집왔던 소리를 들어야 했다. 몸이 약하고 일도 잘 못하는 딸을 대신해 친정어머니가 살림을 많이 도와 주셨기 때문이다.

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시면 무조건 나를 밖으로 내보냈다. 어머니가 와 계시면 나는 애들을 맡겨놓고 뭇글씨를 배우고 자수를 배우러 다녔다.

그런 어머니가 하루는 "이리 좀 와봐라" 하시더니 물으셨다.

"애, 매력어 뭐니?"
"매력은 갑자기 왜 물으세요?"
"너희 아버지가 나보고 매력어 없다고 하시더라."
나는 지금도 심각하게 물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.

딸네 집에 와서 일하는 것을 오라버니가 싫어한다면서 아들이 딸네 집을 방문할 때면 옷을 차려 입고 안 그런 척 소파에 앉아있었던 어머니다.

어렸을 때는 지나가다가 내가 유난히 좋아하던 복숭아를 보면 어머니는 값을 묻지도 않고 껍질을 싹 벗겨서 나에게 먹이고는 "얼마예요?" 하고 값을 치르곤 하셨다.

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



참회기도 통해 타인 존중하는 배려심 배워

"난 천 개의 바람, 천의 숨결로 훑날립니다"

자식에 비해 사랑을 너무 받은 것에 대해서 "형제들의 마음이 담긴 게 있었겠구나"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머니의 큰딸에 대한 헌신은 눈물겨웠다.

어머니는 약주를 즐겨하셨던 아버지가 못마땅하

셨는지 가끔 언성을 높이곤 하셨는데, 그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결혼하고 남편에게 한 번도 목소릴 높여 말하지 않게 되었다.

"약주는 얼마나 하세요?"
남편이 시원스레 대답했다.
"잘 못합니다."

그런 출만 알고 술에 관해 무방비 상태로 결혼했는데, 결혼하고 한 달 뒤부터 마시기 시작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웠다.

"10년 정도 지나니까 네가 그 소리 안 하더라. 네가 그 소리 할 때마다 내가 죽을 뻔 했다."

지금도 어머니의 그 소리가 귀에 쩁쩍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 때문일 것이다.

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과 의사인 작은 외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역할을 하셨다.

불교에 입문해서 활동하는 딸을 보시고는 큰 외손자에게 어머니는 "재성이, 너는 절대 스님이 되지 말

아라." 하고 걱정하셨다. 큰 외손자가 워낙 순종적이고 착하기가 불교에 푹 빠진 딸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신 것 같다.

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감기 한번, 배탈 한 번, 용돈 한번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3개월 앞으시다 고평히 영원한 잠에 드셨다.

평소 어머니는 나에게 "네가 많은 걸 주었다"고 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걸 받고 살았다.

술을 좋아하던 남편을 탓하며 어머니를 원망하던 딸 때문에 죽을 뻔 하셨다면 어머니, "늬다오너라" 하시며 딸을 밖으로 내보내 주던 어머니, 무엇이든 먹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시던 어머니께 이 글을 바치고 싶다.

"난 천 개의 바람, 천의 숨결로 훑날립니다"

나는 빛이 되고, 비가 되었습니다.
나는 피어나는 꽃 속에 있습니다.
나는 곡식 익어가는 들판이고, 당신의 하늘을 땀뿀는 새,
내 묘지 앞에서 울지 마세요. 나는 그 곳에 없습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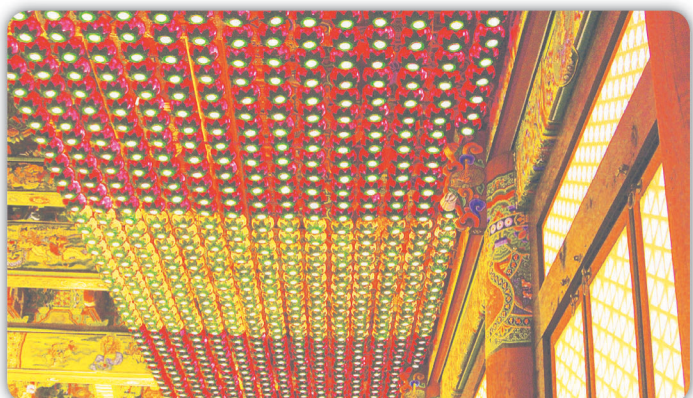
책상 앞에 앉았는데 나의 뇌리 속에 위의 시 구절이 스쳐 지나간다. 아마도 어머니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.
<여여원 원장>

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



특가행사 진행중

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



만 월 등



바 림 등



자 비 등



정품 LED전구



- ※LED 전구
● 기존 전기요금의 10% 정도가 소요
●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: 98원/1kwh
●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
●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
● 시설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

팔각주름등



공 단 등



팔 각 접 등



연꽃만월등



연 화 연 등



차 걸 이



인 등

